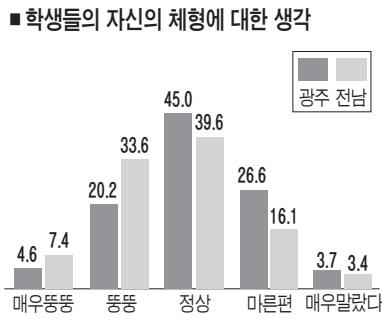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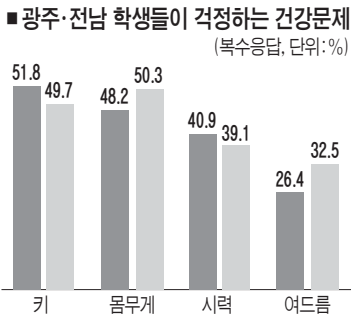


초·중·고생들 다이어트 열풍



광주 D여고 3학년인 고모(18)양은 최근 70kg이었던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다. 매일 500회가 넘는 줄넘기를 했으며, 방학 때는 2천회 이상을 했다. 저녁은 오후 6시 이전에 오이와 우유 등으로 가볍게 해결하고 이후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6개월 만에 몸무게를 49kg까지 줄인 고양은 지금도 저녁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혹시나 다시 살이 쏠까 봐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미니스커트·몸짱 붐에 편승

광주·전남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도 살을 빼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 친구들이나 부모에게서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너 살쪘다’를 꼽는다. 학생들의 다이어트 바람은 최근 불고 있는 미니스커트 붐과 ‘몸짱’열풍에 편승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건위원회’가 최근 한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광주·전남의 초·중·고 학생 261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6.1%가 다이어트 경험 이 있다고 대답했다. <표> 또 49.4%의 학생이 몸무게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34.1%는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이어트를 했던 학생들 중 30.9%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답했고, 어지러움을 느낀 학생도 11.7%나 됐다. 19.1%는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폭식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36%가 다이어트 경험

다이어트의 방법으로는 ‘식사를 조금만 하고 운동을 한다’가 63.3%로 가장 많았고, 15.6%는 끼니를 거르며 살을 빼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 보기 싫어서’와 ‘친구들이 놀리거나 둔하다고 생각해서’가 각각 36.2%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2.2%가 비만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의 10.9%보다 1.3% 증가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답다... 더워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조금 끼겠다.

구분	구름	조금	비율 (%)
광주	구름 조금	13~25℃	13~21℃
전남	구름 조금	14~20℃	13~22℃
전북	구름 조금, 안개	12~24℃	12~23℃
충청	구름 조금	12~24℃	12~24℃
강원	구름 조금	12~22℃	12~22℃
경북	구름 조금, 안개	12~25℃	12~25℃
경남	구름 조금	12~22℃	12~22℃
충남	구름 조금	13~21℃	12~25℃
전남	구름 조금	12~26℃	12~26℃
제주	구름 조금	11~24℃	11~24℃

5월 11일

(음 4월 14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0:55
여수 밀물 < 07:48

▲해돋이 05:32 ▲해질 19:26 ▲달돋이 17:35 ▲달질 04:0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2	14/22	12/25	11/26	14/28	14/28



살아있는 5·18 문화콘텐츠

문화상품으로 당당히 부활

5·18이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문화 콘텐츠로 제작되는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무겁고 딱딱한 주제가 아니다. 프랑스의 ‘파리 코뮌’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뮤지컬로 시대에 어울렸듯, 5·18 역시 당당한 문화상품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게 재탄생되고 있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26주년 행사도 ‘문화’가 중심축이다.

우선 첨단 영상 시대에 걸맞게 영화·영상·사진 등 시각 매체화 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 3월 개봉될 예정인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화려한 휴가’에는 총 100억원이 투자되며 김지훈(35)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안성기, 이준기, 이요원, 차인표 등이 출연한다.

5·18기념재단도 삼금 1억원을 내걸고, 5·18을 주제로 한 순수창작 극영화 시나리오를 공모해 당선작을 실제 영화로 제작할 계획이다. 2006년 한 해 5·18과 관련된 모든 행사·인물 등을 사진,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진·영상제’도 열린다. 광주출신 작가 홍성담(51)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5·18기념문화관에서 80년 당시 선전요원으로 활동했던 기억을 담아 ‘광주의 오월연작’ 판화 49점을 선보였다.

기존 작품과 만화, 청소년 연극 등을 5·18이후 세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올해 ‘광주오월음악제’에서는 5·18을 주제로 한

글·시·노래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며, 5·18 기념재단은 최근 음반 ‘5월의 노래’를 제작해 내놓았다. 청소년들이 ‘금희의 오월’ ‘별남’ 등 기존 연극을 새롭게 각색하는 ‘제1회 5·18 청소년 연극제’도 오는 11월 예정돼 있다. 소위 ‘5·18 이후 세대’들에게 ‘5월 정신’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다. 웹 애니메이션 제작 역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극 ‘5월의 신부’가 광주·서울·마산 등에서 공연돼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현재 국내 최고 수준 뮤지컬 극단인 ‘신시뮤지컬컴퍼니’(대표 박명성)가 뮤지컬로 제작해 2008년 초연을 기다리고 있다. 극단 ‘신명’도 지난 1988년 초연했던 마당극 형식의 연극 ‘일어서는 사람들’을 오는 13~14일 한

번 무대에 올린다. 고재대(5·18기념재단 문화홍보담당)씨는 “5·18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며 “5·18을 이해하고 알리는 데 영화·연극 등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강의(5·18민주화운동 제26주년 전야제 총연출)씨는 “당시 세대들의 기억이 엷어지고, 이후 세대들은 5·18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생생한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과 방식은 자연스러운 추세”라면서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상무공원 발힐 태양광발전시스템
광주시 서구청이 7억원을 들여 상무시민공원에 조성한 50kw 규모의 솔라파크(태양광발전시스템). 하루 200kw의 용량으로, 분수대·조명시설 등 공원 내 전력소비의 60%를 담당한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춘지 받은 교사 강력 처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는 오는 15일 ‘제2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춘지 수수자로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했다.

한편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경우 지난 4월 초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로 한 선물수수 등 말쑥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초등 103개 중 26개, 중등 80개 중 40개, 고등 61개 중 14개 등 총 280개교 중 80개교(28.6%)가 스승의 날 휴업을 결정했다. 전남도 초·중·고교는 물론 학부모로부터 춘지를 받는 행위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다는 점을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청렴위는 각급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춘지수수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춘지 수수자로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경우 지난 4월 초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로 한 선물수수 등 말쑥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초등 103개 중 26개, 중등 80개 중 40개, 고등 61개 중 14개 등 총 280개교 중 80개교(28.6%)가 스승의 날 휴업을 결정했다. 전남도 초·중·고교는 물론 학부모로부터 춘지를 받는 행위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다는 점을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청렴위는 각급 교육청과 학교에서

서울대 총학 한총련 탈퇴

학생 정치조직과 분리 선언

서울대 총학생회가 학생운동 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탈퇴하고 모든 학생 정치조직과 분리를 선언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0일 ‘총학생회와 학생정치 조직의 분리선언’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총련 등 학생 정치조직은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운동방식,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으로 다수 학생의 관심과 괴리되면서 학우들을 학생운동의 객체로 전락시켰다’며 탈퇴의사를 밝혔다.

총학생회는 “전국학생연대회의(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전학협),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학생정치 조직과도 분리와 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황라열(29·종교학과) 총학생회장

은 “대다수 서울대생은 투쟁 일변도의 학생운동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총련 활동에 서울대 총학이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93년 출범한 한총련은 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과격한 투쟁 방식으로 친북·반미 논쟁을 일으켜 온 단체. 올해 출범한 제14기 의장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장승희(27·공과대학)씨가 당선됐다.

한편 서울대 총학은 또 전국의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 관행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맺어 왔던 후원 및 광고계약을 앞으로는 총학생회가 직접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대 총학은 지금까지 운동권 계열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행업체 P사를 통해 모든 계약을 체결해 왔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광주방문 저지”

민노총 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희성)는 오는 18일 5·18광주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할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을 물리력으로 막겠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최근 평택 미군기지 시위사건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의 사태는 모두 노 대통령 탓”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확산시키고 쌀수입을 허가해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은 노 대통령은 민주화의 성지 망월묘역을 맑음 자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주형기자 jhlim@

당선확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010-524-6523-4
017-603-6524

삼보전기온품판매

30% 안팎의 절감

●취급품 모집
●최저단가제정

삼우상사
010-228-4242
332-6262
524-6262

세계최초 공기과학 냉+난방기

공기를 에너지로
유지비용 1/3로
유해가스를 0%로

사용요금을 일반전력보다 더 저렴!

3

●구입비용 최소화
●설치비용 최소화
●유지비용 최소화

오일총본

010-524-6523-4